

장애학생의 SNS 이용 실태와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 지 연**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정 은 희***

조선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시각·지체·청각장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SNS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SNS 이용여부에 따른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시각·지체·청각장애 특수학교 3개교의 중·고등학생이며 설문지에 의한 조사연구이다. 자료처리는 빈도분석, *t* 검정,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SNS 이용 장애학생은 약 70%였고, 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싸이월드와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었다. SNS 이용 기간은 1년~3년, 하루 1시간 이내의 이용자가 많았다. SNS의 주된 이용 목적은 대인관계였으며 주로 만나는 사람은 비장애인이 더 많았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 중 일상생활에서 만남을 유지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로 인해 직접적인 대인관계가 꺼려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SNS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기기가 없거나 이용방법을 모른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SNS를 이용하는 집단이 이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전체 대인관계에서 더 높았으나 두 집단 모두 대인관계 점수가 낮았다. SNS 이용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매우 낮았다. 셋째, SNS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두 집단 모두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다.

주제어 : 장애학생, SNS,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 이 논문은 이지연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발췌하였음.

** 제1저자(leejidung@naver.com)

*** 교신저자(eunheej@chosun.ac.kr)

1. 서론

지식경제부는 스마트시대를 맞아 웹 기반의 이러닝(e-learning)을 스마트러닝으로 확산, 발전시켜 글로벌 4대 스마트러닝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비전을 발표했다(아시아경제, 2011). 스마트러닝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와 이러닝 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 서비스다.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보급은 장애학생의 경우 정보통신 기술의 도움을 받아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교사와 친구들과의 대화와 생활에 도움을 받아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2012년 교실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12년 3월 세종시에는 스마트 스쿨이 도입되어 올해 3개교(참초중, 한솔중, 한솔고)가 개교하였고, 동년 4월에는 서울 국사봉중학교 특수학급에 청각장애학생 스마트교실을 구축하여 실시간 수화통역과 문자통역을 제공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스마트 스쿨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실이나 집에서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출석, 수업, 학사행정 등 학교생활 전반에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교육시스템을 말한다. 앞으로 이러한 교실의 변화는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러닝은 순회교육 대상 학생 및 건강장애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일반학교 배치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수업결손이나 교우관계 등 학업과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까지 청각과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러닝 기기를 보급하는 등 지원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교육과학기술부(2011b)는 이와 같은 스마트 교육체제를 도입하고자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시작으로 교과서 내용을 학생 개개인이 가진 태블릿 PC(갤럭시탭, 아이패드 등)나 IP TV 등으로 바로 불러내서 공부하는 스마트 교육을 추진 중이다.

소셜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망을 뜻하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서비스를 말하며(김중태, 2010),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미니홈피, 미투데이, 카카오톡, 마이스페이스 등이 있다. 최근휴대폰 기능에 데이터 통신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 폰은 웹 기능과 모바일 기능이 합쳐진 새로운 미디어로서 SNS의 폭발적인 이용증가를 가져왔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박은주, 2012). 또한 모바일 기반의 SNS가 활성화되면서 SNS는 주요 인맥관리 기능 외에 손쉽게 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누구와도 손쉽게 공유되면서 확장된 온라인 관계형성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김연정, 2010).

최근 전 국민의 46.6%가 SNS를 이용하고 있는데(블로닷넷, 2012),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과 친교 비중이 높고,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한다(안정민, 2011). 백승희(2011) 역시 SNS의 기능을 정보획득보다는 친목과 인맥형성과 같은 교류를 통한 정서적인 교감이라고 하였다. SNS는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노년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의 디지털 참여와 관계형성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생활 편리성 증대', '뉴스습득 및 정보검색 시간 단축', '습득 정보량 증가', '인터넷 이용시간 증가', '인간관계 확대' 등 실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애로 인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이동과 정보 접근, 사회적 교류 등에서 제한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차이 없이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SNS는 정보공유 뿐 아니라 장애학생의 교육에도 응용이 되기도 하는데,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는 IEP Checklist라는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있다. IEP Checklist 앱은 IEP구성요소에 맞추어 13개로 분류되어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교사와 학부모간의 정보교환과 특수교육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유튜브, 2010). 다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유용하고도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접근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SNS는 장애학생들에게도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이자, 일상의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다.

청년기에 발달된 성격은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틀을 제공하며, 만약 청년이 친한 친구를 갖지 못하면 외로움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가치감이 저하된다(노안영, 2003). 적절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며, 경험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다. 또한 의사소통이 잘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타인 및 타인의 사상에 대해서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조진희, 1996).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상호관계를 통해 다양한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장애인들도 역시 각자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고, 동시에 자신의 장애와 관련하여 각자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다. 같은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각각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와 관련된 독특한 특성과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개인이 경험한 세계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된다. 발달초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 개념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계속 수정되고 변화된다(정종진, 1998).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적극적이며 활동적이지만 낮은 학생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소심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비관적이어서 대인관계에까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신경수, 2000).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몇몇 연구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고한다(서정아, 2008; 정용진, 2003). 서정아(2008)는 경도정신지체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관계형성에 문제점을 가지게 되어 비장애학생에 비하여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하였다. 한편, 정용진(2003)은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하여 경도정신지체 학생의 사회적 자아가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여 긍정적 자아개념의 변화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연구(박윤진, 2011; 박지연 2007; 황혜자, 유선림, 2005)를 통해서도 보고되고 있다. 한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강우진(2011)은 청각장애청소년은 장애로 인해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은효진(2004)은 자기에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가 수용적이고 우호적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청소년 시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민감하며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원만한 대인관계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장애 청소년도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의 부정적 경험으로 대인관계나 자아존중감 형성에 실패를 겪을 수 있으며, 학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부는 성인이 되어서도 과거의 두려움을 안고 있거나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고, 사회참여에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최근 SNS는 대인관계 형성의 새로운 매체가 되어 폭넓은 참여와 교류의 기회를 주고 있다. SNS를 통해서 자유롭게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모두를 만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장애 노출여부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에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에 있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청소년은 SNS를 통하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SNS 이용 실태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일반학생의 SNS이용실태와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백초롱, 2011; 이소연, 2012; 이현지, 2012; 최미라, 2007), SNS이용자의 대인관계의 만족감과 높은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의 SNS 이용 실태와 대인관계,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최근 SNS사용이 급증하고 장애학생의 스마트러닝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확대 도입되기 전에 장애학생의 SNS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SNS사용과 장애학생의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결함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각·지체·청각장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SNS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SNS를 이용하는 장애학생과 SNS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학생간의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의 SNS 이용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SNS 이용여부에 따른 장애학생의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SNS 이용여부에 따른 장애학생의 대인관계 요인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G광역시에 위치한 시각·지체·청각장애 특수학교 3개교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전체 204명 중에서 SNS 이용 능력과 관련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학생들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학생 80명이다. 해당 특수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경우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개별적으로 수화나 읽어주기를 지원하여 작성하였다.

회수된 총 75부(회수율 94%)의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답한 1개의 설문지와, 일부 무응답으로 답한 1부를 제외한 총 73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응답자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기초사항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유형	시각장애	28	38.3	
	청각장애	14	19.2	
	지체장애	31	42.5	
성별	남	47	64.4	
	여	26	35.6	
학년	중학생	27	37.0	
	고등학생	46	63.0	
연령	14-16세	24	32.9	
	17-19세	35	47.9	
	20세 이상	14	19.2	
장애등급	1급	42	57.5	
	2급	15	20.6	
	3급 이상	16	21.9	
장애유형별 이용언어	시각장애 (n=28)	목자	17	60.7
		점자	7	25.0
		목자+점자	4	14.3
	청각장애 (n=14)	수화	9	64.3
		구화+수화	5	35.7
합계		73	100.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체장애가 42.5%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가 38.3%, 청각장애가 19.2%로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남자가 47명(64.4%), 여자가 26명(35.6%)이다. 학년은 고등학생이 63.0%, 중학생이 37.0%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17-19세가 47.9%로 가장 많고, 20세 이상이 19.2%, 14-16세가 32.9%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1급이 57.5%, 2급 이상이 42.5%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 이용 언어는 청각장애 학생 중 수화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64.3%, 구화+수화가 35.7%로 나타났다.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목자가 60.7%, 점자가 25.0%, 목자+점자가 14.3%로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1) SNS 이용 실태 설문지

장애학생의 SNS 이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 실태조사(2010), 오윤경(2011) 등의 문헌을 통하여 1차 설문지를 작성한 후, 3회에 걸친 지도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그 후 예비조사를 실시 한 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14문항을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2> SNS 이용 실태 설문지의 구성

구 분	내 용	문항번호	문항수
SNS 이용 여부	이용 유무, 이용하지 않는 이유	1, 2	2
SNS 이용 정도	이용하는 SNS 종류, 이용하는 정보기기, 보조 장치, 이용 동기, 이용기간, 이용시간	3~8	6
SNS 인맥 유형	인맥 수, SNS에서의 만남의 정도, SNS에서 주로 만나는 사람, 일상생활에서의 만남, 일상에서 만남이 없는 이유, 관계 지속여부	9~14	6
합 계			14

2) 대인관계 검사

본 연구를 위한 대인관계 검사는 Schlein과 Guerney(1971)가 개발한 RCS(Relationship Change Scale)를 문선모(1980)가 번안하고, 전석균(1994)이 수정한 대인관계 척도이며 오윤경(2011)이 이용한 것이다. 이 척도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7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으면 대인관계 성향이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오윤경(2011)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90$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1$ 이었다. 하위영역별 내용과 문항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대인관계 설문지의 구성

구 분	내 용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만족감	인간으로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만족감이나 타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	1, 2, 3, 4	4	.91
의사소통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나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정도	9, 14, 18, 19	4	
신뢰감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	15, 23, 24	3	
친근감	다른 사람과 나와의 친근 정도	5, 11, 16	3	
민감성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수성 정도	6, 10	2	
개방성	타인에 대한 나 자신의 표현이나 개방성 정도	12, 17, 20, 21, 22	5	
이해성	자신과 타인의 느낌을 이해하는 정도	7, 8, 13, 25	4	
합 계			25	

3) 자아존중감 검사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Coopersmith(1967)가 개발한 SEI(self-esteem inventory)를 박애선(1994)이 번안한 것을 경도정신지체학생의 자아존중감 검사를 위해 서정아(2008)가 수정·보완한 것을 이용하였다. 서정아(2008)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77$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6$ 이었다. 총 문항수는 25문항으로, 검사의 하위영역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아존중감으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 로 반응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자아존중감 설문지의 구성

구 분	내 용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일반적 자아존중감	몸집, 생김새, 외모, 기능, 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	(1), (3), 4, (7), (10), (12), (13), (15), (25)	9	.76
사회적 자아존중감	또래, 급우, 친구에 대한 자아존중감	5, 8, 14, (18), (21)	5	
가정적 자아존중감	부모, 가족 등에 대한 자아존중감	(6), 9, 11, (17), 20, (22)	6	
학업적 자아존중감	교사, 급우, 공부에 대한 자아존중감	(2), (16), 19, (23), 24	5	
합 계			25	

() 역채점 문항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인 SNS 이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문항을 재구성하여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 초안은 지도교수와 3차례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으며, 수정된 설문지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시각장애학생 2명, 지체장애학생 3명, 청각장애학생 2명, 총 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기간은 2012년 2월 7일부터 2월14일까지였으며, 설문지 응답 소요시간은 대략 15분에서 30분 정도였다.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특수교육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장애학생의 일반적인 항목 및 SNS를 통하여 주로 만나는 사람 및 일상생활에서의 만남 유무 문항을 수정 및 추가하였고, 시각·지체·청각 장애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정보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활용하는 보조 장치 항목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14문항을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2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회수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NS 이용 실태에 대한 자료는 기술통계량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았고, 이 중 복수응답을 요구한 문항은 케이스백분율을 산출하였다. SNS를 이용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t 검증을 실시하였고, 대인관계 요인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SNS 이용 실태

1) SNS 이용 여부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이용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69.9%,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30.1%로 나타났다.

<표 5> SNS 이용 여부

이용여부	빈도	백분율(%)
예	51	69.9
아니오	22	30.1
합계	73	100.0

2) SNS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SNS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학생들 22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알아본 결과, <표 6>과 같이 SNS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36.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기기가 없어서(PC, 스마트폰 등)가 31.8%,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8.2%, 사생활 노출이 염려돼서가 9.1%, 관리하는게 귀찮아서가 4.5%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SNS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유	빈도	백분율(%)
정보기기가 없어서(PC, 스마트폰 등)	7	31.8
SNS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8	36.4
필요성을 못 느껴서	4	18.2
관리하는게 귀찮아서	1	4.5
사생활 노출이 염려돼서	2	9.1
합계	22	100.0

3) 주로 이용하는 SNS

SNS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학생 51명을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 SNS를 알아본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싸이월드가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톡이 24.7%, 카페가 16.1%, 블로그가 1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주로 이용하고 있는 SNS

(n=51)

구분	카페	블로그	싸이월드 미니홈피	미투데이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기타	합계
빈도	15	13	28	2	4	23	3	5	93*
백분율(%)	16.1	14.0	30.1	2.2	4.3	24.7	3.2	5.5	100.0
케이스백분율(%)	29.4	25.5	54.9	3.9	7.8	45.1	5.9	9.8	182.3

* 복수 응답 결과임.

4) 이용하고 있는 정보기기

주로 이용하는 정보기기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가 50.5%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이 31.9%, 노트북, 넷북이 13.2%, 스마트패드가 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이용하고 있는 정보기기

(n=51)

구분	컴퓨터	노트북, 넷북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갤럭시탭, 아이패드 등)	합계
빈도	46	12	29	4	91*
백분율(%)	50.5	13.2	31.9	4.4	100.0
케이스백분율(%)	90.2	23.5	56.9	7.8	178.4

* 복수 응답 결과임.

5) 활용 보조 장치

SNS를 이용할 때 정보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활용하는 보조 장치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용하는 보조 장치가 없는 경우가 40.4%였다. 이용하고 있는 보조 장치로는 시각장애전용프로그램이 12.2%, 전자 점자단말기가 12.2%, 대체키보드가 8.5%, 음성인식기, 음성합성기가 7.3%, 화면확대기가 7.3%, 대체마우스(조이스틱, 트랙볼)가 3.7%, 거치대가 2.4%, 터치펜이 2.4%, 마우스스틱, 헤드스틱이 1.2%, 키가드가 1.2%, 손가락(손바닥)지지용 타이핑막대가 1.2%로 나타났다.

<표 9> 정보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활용하는 보조 장치

(n= 51)

구분	빈도(명)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없음	33	40.4	64.7
거치대	2	2.4	3.9
터치펜	2	2.4	3.9
대체키보드	7	8.5	13.7
대체마우스(조이스틱, 트랙볼)	3	3.7	5.9
시각장애전용프로그램	10	12.2	19.6
음성인식기, 음성합성기	6	7.3	11.8
전자 점자 단말기	10	12.2	19.6
화면확대기	6	7.3	11.8
마우스스틱, 헤드스틱	1	1.2	2.0
키가드	1	1.2	2.0
손가락(손바닥)지지용 타이핑막대	1	1.2	2.0
합계	82*	100.0	160.9

* 복수 응답 결과임.

6) SNS를 이용하는 동기나 목적

SNS를 이용하고 있는 주요 동기나 목적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관계를 위해서가 50.9%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27.3%, 게임, 영화, 음악감상, 음악 감상을 위해서가 16.4%, 학습을 위해서가 5.5%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SNS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나 목적

(n= 51)

구분	대인관계	정보습득	게임, 영화, 음악감상	학습	합계
빈도	28	13	7	3	51
백분율(%)	54.9	25.5	13.7	5.9	100.0

7) SNS 이용기간

학생들의 SNS 이용기간은,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3년이 33.3%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이 23.5%, 6년 이상이 17.6%, 6개월 미만이 15.7%, 3년~5년이 9.8%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SNS 이용기간 (n=51)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1년 ~ 3년	3년 ~ 5년	6년 이상	합계
빈도	8	12	17	5	9	51
백분율(%)	15.7	23.5	33.3	9.8	17.7	100.0

8) SNS 이용시간

학생들의 SNS 이용시간에 대해 알아본 결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시간 이내가 45.1%로 가장 많았고, 1~2시간이 27.5%, 2~3시간이 15.7%, 3~5시간이 9.8%, 5시간 이상이 2.0%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SNS 이용시간 (n=51)

구분	1시간 이내	1~2시간	2~3시간	3~5시간	5시간 이상	합계
빈도	23	14	8	5	1	51
백분율(%)	45.1	27.5	15.7	9.8	1.9	100.0

9) SNS 인맥 수

학생들의 SNS에서의 인맥 수에 대해 알아본 결과,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20명이 25.5%로 가장 많았으며, 50명 이상이 23.5%, 21~50명이 19.6%, 6~10명이 19.6%, 1~5명이 11.8%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SNS 인맥 수

(n= 51)

구분	1~5명	6~10명	11~20명	21~50명	50명 이상	합계
빈도	6	10	13	10	12	51
백분율(%)	11.8	19.6	25.5	19.6	23.5	100.0

10) SNS를 통해 사람들과 깊이 있게 사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SNS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SNS를 통해 사람들과 깊이 있게 사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이 4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다는 응답이 21.6%,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9.6%, 아니다는 응답이 9.8%, 전혀 아니다는 응답이 3.9%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SNS를 통해 사람들과 깊이 있게 사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n= 51)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빈도	2	5	23	11	10	51
백분율(%)	3.9	9.8	45.1	21.6	19.6	100.0

11) SNS를 통해 주로 만나는 사람

SNS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SNS를 통해 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본 결과,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장애인이 66.7%, 장애인이 33.3%로 나타났다.

<표 15>

SNS를 통해 주로 만나는 사람

(n= 51)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인	17	33.3
비장애인	34	66.7
합계	51	100.0

12)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 중 일상생활에서도 만남 유지하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

SNS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 중 일상생활에서도 만남을 유지하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남이 있다는 응답이 51.0%, 없다는 응답이 49.0%로 나타났다.

<표 16> 일상생활에서도 만남을 유지하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 (n=51)

구분	빈도	백분율(%)
있다	26	51.0
없다	25	49.0
합계	51	100.0

13)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와 일상생활에서 만남이 없는 이유

<표 16>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와 일상생활에서 만남이 없다고 응답한 2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로 인해 직접적인 대인관계가 꺼려지기 때문이 44.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만나고 싶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24.0%,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16.0%, SNS에서 자주 만나기 때문이 16.0%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와 일상생활에서 만남이 없는 이유 (n=25)

내용	빈도	백분율(%)
장애로 인해 직접적인 대인관계가 꺼려지기 때문에	11	44.0
만나고 싶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6	24.0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4	16.0
SNS에서 자주 만나기 때문에	4	16.0
합계	25	100.0

14)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와의 관계 지속 희망 여부

<표 16>에서 만남을 유지하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26명을 대상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희망한다는 응답이 92.3%,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로 나타났다.

<표 18>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와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희망하는지 여부
(n=26)

구분	빈도	백분율(%)
예	24	92.3
아니오	2	7.7
합계	26	100.0

2. SNS를 이용하는 장애학생과 SNS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학생간의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 특성

1) SNS 이용여부에 따른 대인관계 차이

SNS 이용여부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9>과 같다.

<표 19> SNS 이용여부에 따른 대인관계 차이

		N	M	SD	t	p
만족감	예	51	2.89	.462	1.053	.296
	아니오	22	2.76	.485		
의사소통	예	51	2.83	.423	1.764	.082
	아니오	22	2.61	.616		
신뢰감	예	51	2.92	.489	3.109**	.003
	아니오	22	2.55	.406		
친근감	예	51	3.02	.535	2.462*	.016
	아니오	22	2.70	.459		
민감성	예	51	2.73	.472	-.530	.597
	아니오	22	2.80	.611		

		<i>N</i>	<i>M</i>	<i>SD</i>	<i>t</i>	<i>p</i>
개방성	예	51	2.75	.479	2.837**	.006
	아니오	22	2.39	.547		
이해성	예	51	2.90	.534	.833	.408
	아니오	22	2.80	.413		
전체 대인관계	예	51	2.86	.368	2.293*	.025
	아니오	22	2.64	.406		

* $p < .05$, ** $p < .01$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NS 대인관계 하위영역 중 신뢰감($t = 3.109, p < .01$), 친근감($t = 2.462, p < .05$), 개방성($t = 2.837, p < .01$), 전체 대인관계($t = 2.293,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뢰감은 SNS를 이용하는 집단의 평균이 2.92, SNS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은 평균 2.55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이지는 않으나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SNS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신뢰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근감은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3.02, SNS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2.70으로 나타나 SNS를 이용하는 집단이 친근감에서 더 긍정적이며 SNS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성은 SNS를 이용하는 집단이 2.75, SNS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 2.39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개방성은 낮지만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SNS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개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여부에 따른 전체 대인관계는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2.86, SNS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2.64로 나타나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SNS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전체 대인관계가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NS 이용여부에 따른 만족감, 의사소통, 민감성, 이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2) SNS 이용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SNS 이용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은 모두 낮으며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표 20〉 SNS 이용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i>N</i>	<i>M</i>	<i>SD</i>	<i>t</i>	<i>p</i>
일반적 자아존중감	예	51	1.45	.234	1.239	.220
	아니오	22	1.37	.265		
사회적 자아존중감	예	51	1.58	.260	1.640	.105
	아니오	22	1.47	.251		
가정적 자아존중감	예	51	1.70	.235	.494	.623
	아니오	22	1.67	.230		
학업적 자아존중감	예	51	1.55	.249	1.721	.090
	아니오	22	1.44	.274		
전체 자아존중감	예	51	1.55	.177	1.740	.086
	아니오	22	1.48	.183		

3. SNS를 이용하는 장애학생과 SNS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학생의 대인관계 요인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1) SNS 이용자의 대인관계 요인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SNS 이용자의 대인관계 요인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관계 요인 중 만족감($r = .549, p < .01$), 의사소통($r = .348, p < .01$), 신뢰감($r = .423, p < .01$), 친근감($r = .407, p < .01$), 개방성($r = .426, p < .01$), 이해성($r = .359, p < .01$)과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인관계 요인 중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대인관계와 전체 자아존중감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 = .534, p < .01$). 즉 전체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전체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인관계요인 중 민감성은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 > .05$).

<표 21> SNS 이용자의 대인관계 요인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전체 대인관계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
만족감	1												
의사소통	.445 (**)	1											
신뢰감	.562 (**)	.502 (**)	1										
친근감	.468 (**)	.611 (**)	.575 (**)	1									
민감성	.199	.467 (**)	.229	.431 (**)	1								
개방성	.369 (**)	.656 (**)	.426 (**)	.581 (**)	.419 (**)	1							
이해성	.441 (**)	.667 (**)	.491 (**)	.538 (**)	.585 (**)	.579 (**)	1						
전체 대인관계	.672 (**)	.833 (**)	.713 (**)	.792 (**)	.585 (**)	.801 (**)	.826 (**)	1					
일반적 자아존중감	.411 (**)	.226	.281 (*)	.194	.142	.263	.235	.340 (*)	1				
사회적 자아존중감	.364 (**)	.242	.322 (*)	.348 (*)	.118	.365 (**)	.260	.397 (**)	.564 (**)	1			
가정적 자아존중감	.400 (**)	.159	.273	.322 (*)	.134	.232	.163	.321 (*)	.206	.239	1		
학업적 자아존중감	.418 (**)	.420 (**)	.379 (**)	.387 (**)	.422 (**)	.421 (**)	.420 (**)	.540 (**)	.491 (**)	.367 (**)	.254	1	
전체 자아존중감	.549 (**)	.348 (*)	.423 (**)	.407 (**)	.264	.426 (**)	.359 (**)	.534 (**)	.847 (**)	.743 (**)	.559 (**)	.705 (**)	1

* $p < .05$, ** $p < .01$

2) SNS 비이용자의 대인관계 요인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SNS 비이용자의 대인관계 요인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2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관계 요인 중 만족감($r = .626, p < .01$), 의사소통($r = .641, p < .01$), 신뢰감($r = .472, p < .01$), 친근감($r = .789, p < .01$), 민감성($r = .844, p < .01$), 개방성($r = .521, p < .01$), 이해성($r = .693, p < .01$)과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인관계 요인 중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대인관계와 전체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 = .793, p < .01$). 즉 전체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전체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22> SNS 비이용자의 대인관계 요인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전체 대인관계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
만족감	1												
의사소통	.703 (**)	1											
신뢰감	.451 (*)	.487 (*)	1										
친근감	.551 (**)	.507 (*)	.532 (*)	1									
민감성	.652 (**)	.619 (**)	.344	.703 (**)	1								
개방성	.450 (*)	.788 (**)	.467 (*)	.419	.451 (*)	1							
이해성	.666 (**)	.704 (**)	.414	.600 (**)	.723 (**)	.687 (**)	1						
전체 대인관계	.798 (**)	.905 (**)	.630 (**)	.722 (**)	.770 (**)	.825 (**)	.863 (**)	1					
일반적 자아존중감	.309	.429 (*)	.189	.422	.456 (*)	.520 (*)	.569 (**)	.530 (*)	1				
사회적 자아존중감	.678 (**)	.391	.340	.531 (*)	.692 (**)	.158	.334	.517 (*)	.248	1			
가정적 자아존중감	.374	.406	.397	.702 (**)	.593 (**)	.278	.418	.526 (*)	.170	.247	1		
학업적 자아존중감	.553 (**)	.624 (**)	.528 (*)	.699 (**)	.788 (**)	.410	.596 (**)	.717 (**)	.365	.376	.732 (**)	1	
전체 자아존중감	.626 (**)	.641 (**)	.472 (*)	.789 (**)	.844 (**)	.521 (*)	.693 (**)	.793 (**)	.746 (**)	.593 (**)	.680 (**)	.814 (**)	1

* $p < .05$, ** $p < .01$

IV. 논의 및 결론, 제언

1. 장애학생의 SNS 이용 실태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학생들의 SNS 이용률은 약 70%로, 2011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의 SNS 이용률 66.5%와 비교해볼 때 일반 국민의 정보수준에 비해 장애학생들의 정보화수준이 낮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SNS 비이용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대부분이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정보기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2011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 2012)에서 인터넷활용능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발표한 결과와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기보급과 활용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로 이용하는 SNS는 싸이월드, 카카오톡, 카페, 블로그 순이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청소년에게 있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속에서의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동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최미라, 2007). 또한 이와 같은 매체들은 정보·상호작용, 이용관리, 오락·휴식, 자아실현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다(안지연, 2006). 두 번째로 이용률이 높은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무료라는 장점에 장애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용률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주로 이용하는 정보기기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것은 청소년의 생활이 주로 학교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SNS 이용기반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2011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에서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장애인집단에서 스마트폰 구입비 및 이용비용의 부담을 비이용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도 비슷한 맥락으로 장애인의 정보기기 구입 시 현실적 수준의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러닝의 도입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하는 교과부의 계획은 장애학생의 교육차별을 해소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달성되도록 운용해야 할 것이다.

SNS를 이용하는 목적은 주로 대인관계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고영남(2008), 김연정(2010), 백승희(2011), 백초롱(2011), 안정민(2011), 오윤경(2012), 이소연(2012), 이윤경(2012)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비장애인이거나 장애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특성임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보상적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으나, 최근엔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이 이를 보충적 채널로써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이소연, 2012).

한편, SNS 이용목적이 학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5%에 불과한 점은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활용과 스마트러닝의 확대경향에 비추어볼 때 SNS 사용기반의 접근성, 기기활용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SNS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장애학생의 신체적 능력, 지적상태, 보조공학 이용 여부, 이용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의 확보가 필요하다(손지영, 김동일, 2008). '2011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에서도 정보 활용능력·활용량·활용유형과 같은 사용의 질과 연관된 정보 활용 격차가 더 큰 것을 보고하고 있다. 집단 특성상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이용의 불편함'을 지적한 장애인 집단은 장애유형별로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따라서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전용프로그램이나, 전자 점자 단말기, 화면 확대기 같은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지체장애학생의 경우 대체키보드, 대체마우스 등의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고,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실시간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 제공 등이 필요하다. 스마트러닝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신체적 장애로 인해 기기를 사용하기 어렵다든지 제공되는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 9월 장애인의 정보통신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기 접근성을 위하여 공공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고시하였다. 이 지침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 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행정안전부, 2011). 이 지침이 스마트기기 앱 개발 시 준수된다면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립특수교육원(2011)에서 실시한 장애학생을 위한 스마트기기 앱의 활용 및 현황 요구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스마트기기 오픈마켓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용, 장애인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은 국내에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평균 준수율이 55.1%로 낮게 나타났고, 해외에서 개발된 제품의 경우 90.8%로 매우 높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 해외 개발 제품에 비해 국내 개발 제품이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모든 스마트기기의 접근성 개선이 요구된다.

SNS 이용시간은 절반 정도의 학생이 1시간 이내였으나, 3시간 이상의 학생도 11.8%였다. 임승희(2009)는 청소년들이 가입한 사이버커뮤니티의 활동기간은 6개월 미만과 1~2년 미만 이용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혔는데, 본 연구 결과 역시 이와 유사한 이용기간 임을 알 수 있었다. 이용시간 역시 최미라(2007)가 청소년의 블로그 이용에 관해 수행한 연구에서 보면 하루 이용시간 1시간 미만 응답자가 가

장 많았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본 연구의 내용과도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곽보람(2004)의 연구에서 10명 중 2명 정도가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유추하고 있는데,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3시간 이용자가 11.8%가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인터넷 중독 여부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추후 장애학생의 SNS 이용과 중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SNS에서 만나고 있는 친구, 일촌, 팔로우 등 교체 수를 알아 본 결과 11~20명이 가장 많았고, 50명 이상, 21~50명 순으로 나타나, 장애학생들이 SNS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니홈피의 일촌 수를 알아본 최미라(2007)에서는 대부분이 30명 이상과 만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NS를 통해 사람들과 깊이 사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SNS를 통해 주로 만나는 사람은 약 70%가 비장애인이었으며, 이중 절반정도는 일상생활에서도 만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와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온라인상에서의 적극적인 대인관계 활동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영남(2008)의 연구에서 일상에서의 친구관계 만족도와 인터넷상에서의 친구관계 만족도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상에서의 친구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인터넷상보다 일상에서의 친구관계에 서로 더 의존하며, 관계를 더 깊게 생각하고 친구관계가 오래 유지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만남이 없는 이유로는 장애로 인해 직접적인 대인관계가 꺼려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인관계에서 외관이나 기능상의 차이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만남을 꺼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는 장애이해교육을 확대하고, 학생 대상의 심리상담지원과 장애보상기기를 개발·보급하여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SNS 이용에 따른 장애학생 간의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 특성

첫째, SNS 이용여부에 따른 대인관계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대인관계 하위영역 중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전체 대인관계에서 SNS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의 대인관계가 더 긍정적이었다. SNS 이용 집단이 더 높게 나온 점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백초롱(2011)은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 건강정도가 좋았으며 외로움 수준이 낮았다고 밝혔다. 이

현지(2012)는 페이스북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에 대인관계 성향에 차이가 있으며, 비이용자보다 이용자의 대인관계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보고 하였다. 최미라(2007)의 연구에서도 미니홈피를 운영하는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의 만족감과 친근감, 개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미니홈피를 이용하면서 대인관계에 만족감과 친근감을 더 느끼고, 대인간 상호작용이 필연적이므로, 개방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미니홈피를 더 운영하게 된다고 보았다.

다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SNS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두 집단 모두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났으므로 학교교육에서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SNS 이용 장애학생의 대인관계 성향이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볼 때 SNS 이용 기반과 보조공학을 확충하여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SNS 이용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두 집단 간에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왕성한 활동이 오프라인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임승희(2009)는 사이버커뮤니티에 가입한 학생일수록 자신의 매력과 인기가 많다고 느끼며,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가족의 이해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행복하고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 최미라(2007)는 미니홈피를 운영하는 청소년들의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으며 이 결과 자긍심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장애학생은 SNS 이용 유무와는 상관없이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관련 연구에서는 외관상의 차이와 의사소통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피드백과 반응의 경험이 많고 이로 인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서정아, 2008, 이규식 외, 2004).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존중감의 변화가능성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 정용진(2003)은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면서 변화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자아존중감 개념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계속 수정되고 변화되므로(정종진, 1998) 장애학생의 부모와 교사, 또래 등 주변인들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장애 인식개선과 이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조공학을 활용하여 대인관계의 질과 양을 개선시킴으로써 장애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3. SNS를 이용하는 장애학생과 SNS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학생의 대인관계 요인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SNS를 이용하는 장애학생과 SNS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학생의 대인관계 요인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첫째, SNS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의 대인관계 요인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 전체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의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인관계 하위요인 중 민감성이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의 민감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SNS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학생의 대인관계 요인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대인관계 전체와 자아존중감 전체의 관계에서는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전체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학생의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고, SNS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NS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대인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자면, 본 연구의 대상이 광주광역시 시각, 지체, 청각장애학교 학생 중 설문지를 통해 직접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학생들에 한하므로 응답이 불가능한 학생, 일반학교의 장애학생들, 타 지역의 장애학생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영역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SNS 이용실태와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 간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의 내면 심리까지 분석할 수 있는 질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우진 (2011). 청각장애청소년이 갖는 대인관계성향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영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 곽보람 (2004). 인터넷 중독이 대인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영남 (2008). 고등학생의 일상과 인터넷상에서의 친구관계 만족도 및 대인관계 성향. 석사학위 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과학기술부 (2011a).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계획**. 2011.07.07.
- 교육과학기술부 (2011b).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 2011.10.12.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장애학생 스마트교실 구축 추진계획**. 2012. 04.18
- 국립특수교육원 (2011). **장애학생을 위한 스마트기기 앱의 활용 및 현황조사**.
- 김연정 (2010).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계형성에 따른 이용동기: 트위터, 미투데이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 김중태 (2010). **소셜네트워크가 만드는 비즈니스 미래지도**. 경남: 한스미디어.
- 노안영 (2003).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박윤진 (2011).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박은주 (2012). SNS 이용 동기와 충족도에 따른 광고 효과 연구: '페이스북'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박지연 (2007).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백승희 (201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기능 및 사회적 요인이 이용자의 현존감 및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백초롱 (2011). 페이스북 사용과 대인관계 건강, 외로움의 관계에서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격려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정아 (2008). 경도정신지체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자기존중감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지영, 김동일 (2011). "장애학생을 위한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의 정책적 방향 탐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4), 453-480.
- 신경수 (2000). 집단상담프로그램 적용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인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정민 (2011). SNS사용자의 이용 형태와 성격이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 안지언 (2006). 청소년소비자의 싸이월드미니홈피 이용동기와 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오윤경 (2012). SNS 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은효진 (2004). 시각장애학생의 대인관계 성향분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규식, 국미경, 김종현, 김수진, 유은정, 권요한, 강수균, 석동일, 박미혜, 김시영, 권순환,정은희, 이필상. (2004). **청각장애아교육**. 서울: 학지사.
- 이소연 (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집단 판별요인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윤경 (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동기가 지속적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이현지 (2012). 자기노출정도와 대인관계성향에 따른 SNS 이용형태 분석-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임승희 (2009). 청소년의 사이버공동체 활동경험이 사회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정용진 (2003). 집단상담프로그램이 경도정신지체 장애학생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종진. (1998). **자신감과 자아존중감 키우주기**. 대구: 장원교육.
- 조진희 (1996). 놀이를 이용한 집단사회사업실천이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 최미라 (2007). 청소년의 블로그 이용이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SNS 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부의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방향, 13**.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2011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 황혜자, 유선림 (2005).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및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30**, 75-93.
- 행정안전부 (201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블로닷넷 (2012). 지구촌 5명중 1명은 SNS이용자.
<http://www.bloter.net/archives/99004.2012.03.02>
- 아시아경제 (2011). **이러닝을 스마트러닝으로 정부 4대강국 도약선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2011030311223265890>.
 2011.03.03.
- 유튜브 (2010). **IEP CHECKLIST**.
<http://www.youtube.com/watch?v=OtBA0F7tWSo>.
 2010.01.20.

Study on the SNS Utiliz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Esteem on Disabled Students

Lee, Ji Ye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Jeong, Eun Hee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about the utilization of SNS in visually, physically disabled, and hearing impaired youth in middle-high school students and tries to find out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through the changes in disabled youths who use SNS. Also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through seeing whether or not they use SNS. This study is a research based on the middle-high school students in 3 special schools in Gwangju city for the visually, physically disabled, and hearing impaired. The research tool was a survey of 64 questions about the utilization of SN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For the data processing, frequency analysis, *t* test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questions. The first study results was the 70% of disabled students used SNS, they mostly used types like CyWorld and KakaoTalk, and the utilized devices were smart phones and computers. The period of use of SNS was the highest for 1-3 years and most of the users used it less than 1 hour a day. SNS use is the most important purpos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NS mainly met through the normal people who had more. Learned through a friend of SNS meeting in everyday life, why does not maintain a direc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cause of a disability was due to being the unwilling. Many of the students who did not use SNS answered that they didn't have a device or knew how to use it. Second, students who used SNS had higher confidence, friendliness, openness and general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ut both groups showed low figur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verall.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self-esteem in the two groups, and the figures were extremely low in both groups. Third, all disabled students whether or not they used SNS showed static relationships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nd students with highe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ad higher self-esteem.

Key Words : disabled students, SN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esteem